

대전·충청지역의 노동시장 구조에 관한 연구

남 기 곤 (대전산업대 경제학과)

1. 서론

대전·충청지역은 지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색이 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 지역내에 수도권이나 기타 다른 지역으로 부터의 인구 유입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던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의 중심도시라고 할 수 있는 대전 지역 내의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밀집되어 형성되어 있는 고학력의 연구직 노동력 집단은 이 지역 노동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이루고 있으며, 외부로 부터의 인구 유입을 추동하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말부터 진행될 이 지역으로의 정부중합청사의 일부 이전은 이러한 인구 유입 경향을 보다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충남북의 경우 서해안 지역의 공업화 정책 추진으로 인하여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었던 공장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해 오는 경우가 많아 이 지역의 노동시장 역시 급속한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대전·충청지역을 대상으로 이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¹⁾. 이 지역 노동시장에 있어서 노동력 수급 동향 및 이에 의해 결정되는 제반 노동조건 상황을 여타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이 지역 노동시장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노동시장 구조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 중 정명기(1994)는 대전 지역 노동시장의 구조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적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듯보이는 연구이다²⁾. 그러나 이 역시 연구대상이 대전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지역과의 비교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으로써 이 지역 노동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제대로 분석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같이 대전·충청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기

1) 노동시장 구조를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 볼 필요성에 관해 원동규(1992)는 “노동력의 공급 사정과 그에 대한 기업측의 수요 사정이 지역별로 얼마든지 격차가 존재할 수 있고, 그것은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각종의 요인에 의해서 임금수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측면의 격차가 얼마든지 고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의식이 다른 나라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뚜렷하여 타도로의 입직이 심리적으로 장애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통근거리상 시도 단위의 지역 노동시장 구분이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pp.4-18)

2) 이 외에 대전지역 노동시장 구조를 분석하고 있는 논문으로 최정수(1990)의 석사학위 논문 정도가 있으며, 이외에 이 지역의 산업구조나 금융구조를 분석하면서 노동시장의 상황을 단편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연구들이 몇 편 존재한다.

존 연구는 극히 부진한 상태로서, 기초 통계조차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대전·충청지역의 노동시장구조와 관련된 제반 기존 통계자료들을 취합·정리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개별 지표들을 분석해 볼 때 이 지역이 타 지역과 어떠한 유사성 및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 때 기존의 지역경제를 연구하는데 주로 사용되어 온 방식, 즉 대전과 충청북을 중부권 혹은 충청권 등으로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분석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식은 각 지역 그룹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희석시키게 될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서비스산업이 위주로 되어 있는 대전과 같은 광역시와 농촌부문이 아직도 광범위하게 잔존해 있는 충청북과 같은 일반도는 기본적으로 산업구조 상에 큰 차이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 역시 차별적인 양상을 띠고 있을 것이다. 또한 같은 도라 하더라도 충남과 충북 사이에는 수도권과의 인접 정도의 차이 등의 요인으로 인해 노동시장 구조에 있어서도 일정한 차별성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전과 충남, 충북을 독립적인 지역 그룹으로 설정하여 각 지역의 통계치를 각각 제시하고, 이와 병행하여 서울 포함 전국 6대 광역시의 평균치 및 이러한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도의 평균치를 구하여³⁾, 대전의 경우 광역시 평균과 그리고 충남이나 충북의 경우 도 평균과 비교하는 방식을 취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제2장에서는 대전·충청지역 노동시장의 노동력의 수요 구조에 대하여 분석한다. 여기서는 주로 이 지역의 산업구조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 본다. 제3장에서는 이 지역 노동력의 공급구조에 대하여 분석한다. 양적인 측면 및 질적인 측면에서의 노동력 공급 구조에 대하여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제반 노동조건 및 직장만족도 등에 대하여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전·충청지역의 노동시장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및 그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 이 지역에 있어서 보다 바람직한 노동정책의 방향을 모색한다.

2. 노동력 수요 구조

1995년 현재 대전·충청지역은 면적으로 볼 때 16,520 km² 으로 전국토의 1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4,435,729명으로 전인구의 9.9%를 점하고 있다⁴⁾. 지역총생산 규모는 1995년 현재 경상가격 기준으로 33조를 웃돌아 전국총생산 규모의 9.5%를 차지하고 있는데⁵⁾, 이는 전체 인구에 대한 이 지역의 인구 비중과 거의 비슷한 숫치임을 알 수 있다. 개별 지역별로 지역총생산 규모가 전국총생산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전 2.2%, 충남 4.1%, 충

3) 이하 표에서 '광역시'로 분류된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도시이다. 올해 광역시로 승격한 울산은 여기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도'로 분류된 지역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개 지역이다.

4)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1996』, 1996.

5) 통계청, 『1995년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1997.

북 3.2%로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지역의 산업구조 동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대전·충청지역은 농업의 비중이 높았으며, 제조업에 있어서도 음식료품이나 섬유·의복 등 경공업의 비중이 높은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진행되어 온 빠른 속도의 공업화 과정을 통해 이 지역의 산업구조는 크게 변화하였다. 제조업 업종별로 볼 때 석유화학, 기계, 전기·전자 등 자본 및 기술 집약적인 업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⁶⁾.

개별 지역별로 볼 때 대전·충남지역의 경우 1980년대만 하더라도 섬유·의복 산업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1990년대 들어 수도권에 근접한 지리적 이점 및 정부의 서해안 지역 산업기반시설의 확충계획으로 인해 석유화학, 비금속, 기계 등의 업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⁷⁾. 충북지역 역시 1980년대 중반 이후 청주공단의 확대조성, 중부고속도로의 개통 등의 영향으로 매우 높은 생산 증가율을 보여 주었다. 이는 수도권에 대한 강력한 공업입지 억제정책으로 인해 수도권으로부터의 많은 이전 공장들이 진천군과 음성군지역에 대거 입지하였던데 그 원인이 있다. 이에 따라 충북지역도 전기·전자 및 비금속 등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⁸⁾.

이와 같이 이 지역도 1980년대 중후반 이후 자본집약적 업종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해 온 것은 사실이나, 성장률 자체나 이로 인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정도가 타 지역보다 앞서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전국 평균치와 비교해 볼 때 이 지역의 성장 정도는 아직도 이를 밑도는 수준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의 <표1>은 1990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89년부터 1995년 사이 지역내총생산의 연평균 증가율을 정리한 것이다⁹⁾. 표를 보면 이 기간 동안 지역내총생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대전 6.9%, 충남 8.5%, 충북 8.8%로 나타나고 있다. 증가율 자체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대전의 경우 광역시 평균 7.4%에 비하여, 그리고 충남북의 경우 도평균 9.1%에 비하여 오히려 증가율이 약간 밑도는 수준이다.

6) 자세한 숫치는 진영환(1996)을 참조하라.

7) 1993년 현재 대전·충남지역의 경우 제조업 전체 생산액 중 각 업종의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석유화학 20.6%, 비금속 15.9%, 기계 11.8%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1993 광공업 통계조사보고서』, 1995.

8) 1993년 현재 충북지역의 경우 각 업종의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기·전자 20.0%, 비금속 19.0%, 석유화학 15.1%, 기계 11.3%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1993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95.

9) 출발연도를 1989년으로 삼은 것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대전이 직할시(광역시)로 승격하면서 충남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통계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후의 자료만을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

<표1> 지역내총생산의 연평균 증가율 (1990년 불변가격 기준)

(단위 : 백만원, %)

	1989년 지역내총생산	1995년 지역내총생산	연평균 증가율
대 전	3,714,949	5,532,871	6.9
충 남	6,028,983	9,838,622	8.5
충 북	4,859,443	8,074,995	8.8
전 체	167,747,709	271,756,134	8.4
광 역 시	74,494,752	114,011,481	7.4
도 (광역시 제외)	84,928,764	143,071,171	9.1

자료 : 통계청, 『1995년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1997.

그렇다면 이 지역에 있어서 현재 지역내총생산이 각 부문별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 <표2>에서는 1995년 지역내총생산이 각 부문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정리하였다. 표를 보면 가장 특징적인 사실은 대전의 경우 지역내총생산에서 산업 부분의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7.6%로 광역시 평균 94.8%에 비해 거의 10%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대신 정부서비스생산자 부문 그 중에서도 사회서비스업 및 기타 부문의 비중이 8.7%로 광역시 평균치인 3.2%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그만큼 대전 지역이 정부출연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한 정부부문의 구성비가 높다는 사실을 반영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충남북의 경우 지역내총생산에서 산업 부분의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2.2%, 92.6%로 전국 도 평균치 93.7%를 약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대전 지역의 경우 정부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여타 지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상태임을 보여준다.

산업 부문 중 핵심적인 부문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의 비중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1980년대 중반 이후 수도권으로부터의 제조업체 이전이 비교적 활발하였던 충북의 경우 지역내총생산 중 제조업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8.5%로 전국 도 평균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러한 경향이 약했던 대전 및 충남의 경우 그 비율은 각각 23.2% 및 26.7%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대전 지역의 경우 이 숫치는 광역시 평균치인 19.7%를 오히려 약간 상회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전지역과 가장 밀접한 교류관계를 맺고 있는 충남지역에 있어 제조업의 비중이 일반 도 평균보다 13%가량이나 낮다는 것은, 이들 대전·충남지역의 제조업 부문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2>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구성비

(단위 : %)

	대전	충남	충북	전체 평균	광역시 평균	도평균(광역시 제외)
1. 산업	87.6	92.2	92.6	94.8	96.0	93.7
농림어업	0.8	18.9	12.1	6.7	1.1	11.1
광업	0.0	0.6	0.7	0.3	0.0	0.5
제조업	23.2	26.7	38.5	30.9	19.7	39.8
전기가스 수도사업	1.0	4.9	1.4	2.3	1.2	3.1
건설업	14.2	17.6	13.6	12.4	10.7	13.7
도소매업	16.5	5.1	5.1	10.2	15.9	5.6
음식숙박업	1.2	0.6	0.8	1.2	2.0	0.7
운수창고업	5.3	3.0	3.8	5.2	7.4	3.4
통신업	2.6	1.6	1.7	2.2	3.1	1.5
금융 및 보험업	6.4	3.2	4.1	6.6	10.2	3.6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11.9	7.4	7.8	12.6	18.7	7.7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4.3	2.5	3.1	4.3	6.1	2.8
2. 정부서비스생산자	12.4	8.1	8.3	6.7	6.5	6.8
일반공공행정	3.7	3.7	3.8	3.3	3.3	3.3
사회서비스업 및 기타	8.7	4.4	4.6	3.4	3.2	3.5
3. 민간영리서비스생산자	3.6	2.2	1.8	2.4	3.1	1.9
금융귀속서비스	-3.6	-2.5	-2.8	-3.8	-5.7	-2.4
지역내총생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통계청, 『1995년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1997.

노동시장에서는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최종적인 차원에서 노동의 고용량이 결정된다. 그러나 노동력부족이 3-4%대인 지금의 상황에서¹⁰⁾ 그리고 고용에 있어서만큼은 노동 수요측의 영향력이 보다 강하게 작용하는 노동시장의 원리상, 현재 근로자의 고용 상태는 노동에 대한 수요 패턴을 거의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여기서는 5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산업별, 규모별, 종사상지위별 근로자들의 분포를 정리한 <표3>을 통해 이 지역의 노동력 수요 구조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하자.

우선 산업별로 살펴 보면 대전 지역의 경우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27.9%로 광역시 평균치인 34.8%에 비해 7%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¹⁾.

10) 1995년 현재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인력부족률은 3.71%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부, 『노동력수요동향조사보고서』, 1995.

반면 대전 지역은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19.0%로 광역시 평균 12.8%에 비해 6% 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외에 대전 지역의 경우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광역시 평균치에 비해 2% 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²⁾. 반면 대전 지역과 달리 충청북 지역의 경우에는 각 산업별 근로자 구성비가 전국 도 평균과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전 지역에 있어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 부문 내에는 부동산, 임대, 정보처리, 연구개발, 사업서비스 부문이 포함되어 있다. 대전 지역에서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26,064명의 근로자 중 연구개발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13,041명으로 50.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문으로 인해 구성비에 있어 타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전 지역의 경우 연구개발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이 지역의 독특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이들은 주로 1992년에 준공 완료된 대덕연구단지에 밀집되어 있는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다. 박경(1996)에 따르면 이 대덕연구단지에는 1996년 현재 신소재정밀화학, 전자정보, 항공우주, 생명공학, 에너지 자원 및 표준 기초 등의 분야에 38개 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만도 1만 5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다음 규모별로 근로자의 분포를 보면 대전의 경우 광역시 평균에 비해 30인 미만의 소기업 비중은 다소 적은 반면 50-300인 규모의 중기업 비중은 보다 높으며, 300인 이상의 대기업의 비중은 거의 비슷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대전의 경우 위에서 정의한 방식에 따를 때 소기업과 중기업의 비중이 각각 21.9%, 39.7%로 나타나 광역시 평균치인 30.9%, 31.6%와 비교해 볼 때 대전은 소기업의 비중이 적고 대신 중기업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충청북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대전과 비교해 볼 때 그 정도가 매우 약한 것으로 보인다. 소기업과 중기업의 비중은 충남의 경우가 각각 25.8%, 38.5%이고, 충북의 경우는 각각 25.2%, 36.9%이다. 이는 전국 도 평균 27.1%, 33.4%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소기업의 비중이 적고 중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의 차이가 앞에서 살펴본 대전의 경우에 비해 매우 미약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하튼 이와 같이 소기업의 비중이 적고 대신 중기업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은 이 지역 특히 대전 지역에 있어서 사업체의 구성이 전국의 평균적인 상황과 비교해 볼 때 보다 건설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11) 노동부의 사업체 통계에는 ①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② 군, 경찰 ③ 국·공립교육기관, 국·공립병원, 종교단체 등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대전 지역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부문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까지가 포함된 전체 피고용자중 제조업 근로자의 비중은 이 보다도 훨씬 줄어들게 될 것이다.

12) 이는 다음 장에서 다시 설명하게 될 이 지역의 높은 교육 경향과도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표3> 지역별 노동력 구성의 분포 상황

(단위 : 명, %)

	대전	충남	충북	전 체	광역시	도 (광역시 제외)
<전체 노동자수>	137,139 (100.0)	191,465 (100.0)	181,614 (100.0)	6,236,261 (100.0)	3,300,609 (100.0)	2,935,652 (100.0)
<산업별>						
농림어업 및 광업	0.3	1.8	1.0	1.0	0.4	1.6
제조업	27.9	56.6	58.7	45.6	34.8	57.8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71.7	41.6	40.3	53.4	64.8	40.7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0	1.5	1.0	0.7	0.5	1.0
(건설업)	6.0	9.0	7.0	8.1	8.7	7.4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2.1	4.0	4.7	9.3	13.3	4.9
(숙박 및 음식점업)	1.8	1.1	1.3	1.7	2.1	1.3
(운수, 창고 및 통신업)	11.7	7.9	8.0	9.2	10.6	7.6
(금융 및 보험업)	7.9	6.3	6.0	6.3	7.3	5.3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	19.0	4.0	4.2	9.4	12.8	5.5
(교육서비스업)	5.1	3.4	2.8	3.0	3.0	2.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4.0	3.4	3.7	3.4	3.7	3.0
(기타공공,사회및개인서비스업)	3.1	1.1	1.6	2.3	2.7	1.8
<규모별>						
5 - 9인	4.9	4.6	4.4	7.3	8.4	6.0
10 - 15인	6.4	6.6	7.2	8.2	8.8	7.5
16 - 29인	10.6	14.6	13.6	13.6	13.7	13.6
30 - 49인	10.0	12.7	12.3	11.3	10.8	11.8
50 - 99인	15.4	15.9	16.3	13.8	12.7	15.1
100 - 199인	14.3	15.1	14.2	12.0	11.9	12.2
200 - 299인	10.0	7.5	6.4	6.6	7.0	6.1
300 - 499인	6.8	6.6	5.9	6.4	7.3	5.5
500 - 999인	10.8	6.7	8.0	7.9	8.7	6.9
1000인 이상	10.8	9.7	11.7	12.9	10.7	15.3
<종사상지위별>						
개인업주	0.6	0.7	0.6	1.1	1.2	1.0
무급가족종사자	0.1	0.1	0.1	0.1	0.1	0.1
유급임원	1.7	2.0	2.1	2.3	2.7	1.8
상용근로자	94.7	90.6	91.0	91.4	91.2	91.6
임시 및 일용근로자	2.9	6.7	6.2	5.1	4.7	5.5

자료 : 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1996』, 1997.

다음으로 종사상지위별로 근로자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사항은 통상 가장 대표적인 불완전고용층이라고 알려진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비중이다¹³⁾. 대전 지역의 경우 이 비중은 2.9%로 광역시 평균 4.7%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충남 지역과 충북 지역의 경우 이 비율은 각각 6.7%, 6.2%로 전국 도 평균치인 5.5%를 다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전 지역의 경우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비중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중기기업의 비중이 크다는 사실과 더불어 이 지역 노동시장이 전국적인 평균치에 비해 보다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충남북 지역의 경우에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비중이 오히려 미세하나마 전국 평균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 노동시장이 보다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시사해준다.

그렇다면 이들 임시 및 일용근로자라고 하는 불완전고용층은 어떠한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또 그러한 경향이 지역마다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표4>에서는 산업별 및 규모별로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분포 상황을 정리하였다.

우선 산업별로 보면 어느 지역에서나 이들 임시 및 일용근로자들은 건설업 부문에 50% 가까이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이외에 특징적인 사실은 대전의 경우 임시 및 일용근로자 중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비중은 8.1%로 극히 적다는 사실이다. 물론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대전 지역은 제조업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 자체가 적기도 하지만, 그러한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수치는 매우 적은 것이다. 이는 그만큼 이 지역의 제조업 부문의 노동시장이 안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대전 지역의 임시 및 일용근로자 중 이 지역에 있어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부문이나 교육서비스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각각 11.2%, 7.5%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제조업 전체에 종사하는 경우인 8.1%보다도 더 높거나 비슷한 수치이다. 이는 비교적 근대적 서비스 부문으로 알려진 업종 내에도 불완전고용층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충남북의 경우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산업별 분포는 전국 평균치와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어 특별한 특징을 발견하기 어렵다.

다음 규모별로 보면 임시 및 일용근로자들은 예상대로 소기업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임시 및 일용근로자들 중 20% 정도는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역별로 거의 비슷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규모별로 볼 때에도 충남북 지역은 전국적인 평균 추세와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비하여, 대전지역의 경우에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들 중 60.2%가 50-300인 규모의 중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특징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전 지역이 비교적 임시 및 일용근로자라고 하는 불완전고용층의 비중이

13) 임시근로자란 1개월 미만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말하며 한시적 위원, 비상근직, 촉탁 등으로 조사기준일 현재 1개월 미만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역시 이 범주에 포함된다. 일용근로자란 사업체에서 그날그날 필요에 따라 고용된 자로서 조사기준일 이전 3개월 동안 45일 미만 근로한 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통계청,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1996』, 1997.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지역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다 근대적인 형태를 띠고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부문, 예컨대 산업으로 보면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이나 교육서비스업, 그리고 규모로 보면 중기업 내에도 이러한 불완전 고용층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표4> 임시 및 일용 노동자의 분포

(단위 : 명, %)

	대 전	충 남	충 북	전 체
<산업별>				
농림어업 및 광업	26 (0.7)	624 (4.9)	195 (1.7)	5,316 (1.7)
제조업	320 (8.1)	3,598 (28.2)	3,534 (31.2)	75,222 (23.6)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3,583 (91.2)	8,541 (66.9)	7,581 (67.0)	237,752 (74.7)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32 (0.8)	170 (1.3)	5 (0.0)	478 (0.2)
(건설업)	1,976 (50.3)	6,346 (49.7)	5,227 (46.2)	151,579 (47.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303 (7.7)	278 (2.2)	366 (3.2)	23,889 (7.5)
(숙박 및 음식점업)	74 (1.9)	185 (1.4)	166 (1.5)	9,234 (2.9)
(운수, 창고 및 통신업)	119 (3.0)	453 (3.5)	486 (4.3)	12,953 (4.1)
(금융 및 보험업)	98 (2.5)	174 (1.4)	226 (2.0)	6,799 (2.1)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	439 (11.2)	466 (3.7)	366 (3.2)	17,836 (5.6)
(교육서비스업)	293 (7.5)	181 (1.4)	240 (2.1)	4,269 (1.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0 (1.8)	125 (1.0)	260 (2.3)	3,936 (1.2)
(기타공공,사회및개인서비스업)	179 (4.6)	163 (1.3)	239 (2.1)	6,779 (2.1)
<규모별>				
5 - 9인	31 (0.8)	367 (2.9)	236 (2.1)	15,395 (4.8)
10 - 15인	114 (2.9)	638 (5.0)	763 (6.7)	23,075 (7.2)
16 - 29인	294 (7.5)	1,885 (14.8)	1,678 (14.8)	46,600 (14.6)
30 - 49인	407 (10.4)	1,813 (14.2)	2,271 (20.1)	45,877 (14.4)
50 - 99인	971 (24.7)	2,767 (21.7)	2,559 (22.6)	57,571 (18.1)
100 - 199인	845 (21.5)	2,471 (19.4)	1,744 (15.4)	45,741 (14.4)
200 - 299인	552 (14.0)	853 (6.7)	517 (4.6)	23,390 (7.3)
300 - 499인	311 (7.9)	790 (6.2)	168 (1.5)	27,388 (8.6)
500 - 999인	404 (10.3)	128 (1.0)	1,288 (11.4)	19,144 (6.0)
1000인 이상	0	1,051 (8.2)	86 (0.8)	14,109 (4.4)
전 체	3,929(100.0)	12,763(100.0)	11,310(100.0)	318,290(100.0)

자료 : 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1996』, 1997.

이상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노동력의 수요 측면에 있어 대전 지역과 충청북 지역이 서로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대전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정부부문과 서비스부문(그중에서도 특히 연구개발사업이나 교육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중기업의 비중이 높고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비중이 적은 등 노동시장이 안정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 충북의 경우 그동안의 급속한 공업화를 통해 제조업의 비중이 전국 평균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대전 지역과는 달리 전국적인 평균적인 양상과 거의 비슷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이한 사항으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 정도를 지적할 수 있겠다.

3. 노동력 공급 구조

노동력의 공급 구조는 크게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될 수 있다. 여기서 양적인 측면이란 근로자 수나 노동시간과 같은 노동력의 총량적인 공급 구조를 의미하며, 질적인 측면이란 근로자의 숙련 혹은 기능 상의 공급 구조, 특히 기능 인력의 공급 구조를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각각의 측면에 있어서 대전·충청지역의 노동력 공급 구조가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양적인 측면에 있어서 노동력 공급 구조와 관련해서는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자의 수가 어떻게 변화해 오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¹⁴⁾. 이러한 근로자 수의 변화는 우선 그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인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총인구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제활동인구가 어느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 이 중 실제 일을 하고 있는 취업자는 어느정도의 비율을 점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먼저 이 지역의 인구의 변화 추이에 대하여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농촌지역은 그동안의 급격한 이농 현상으로 인해 인구구성이 고령화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은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농촌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생률은 높고 사망률은 낮아 자연증가율¹⁵⁾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 지역에 있어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에서 그동안의 인구 변화 추세를 기초로 1995-2000년까지의 인구동태율을 예측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이 기간 동안 출생률은 대전의 경우 인구

14) 물론 이외에도 근로자의 노동시간의 변화 양상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간은 지역별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6년 현재 주당 노동시간은 전국 평균이 48.3시간인데(초과근로시간까지를 포함한 실근로시간임), 대전의 경우는 50.9시간, 충남의 경우 49.7시간, 충북의 경우 48.8시간으로 조사되고 있다. 대전과 충남 지역의 노동시간이 전국 평균치에 비하여 주당 1-2시간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으나,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부, 『매월노동통계특별조사보고서 1996』, 1997.

15) 자연증가율이란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값이다.

1000명당 14.9명인데 비해 충남의 경우 12.3명, 충북의 경우 13.6명으로 예측되 대전이 충남 북보다 출생률이 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사망률은 대전의 경우 인구 1000명당 4.4명, 충남의 경우 9.4명, 충북의 경우 8.7명으로 예측되 출생률과는 반대의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¹⁶⁾.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전국 평균치는 인구 1,000명당 출생률이 14.8명, 사망률이 5.9명으로 예측되어, 대전 지역의 숫자와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지역의 인구 변화는 이와 같은 그 지역내에서의 출생과 사망으로 인한 자연적인 변화도 있으나, 외부로부터의 인구의 유출입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실 인구의 자연적인 변화는 그 지역 인구의 연령 구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어느 지역이나 비슷한 변화 추이를 보이는 반면, 지역간 인구 이동은 그 지역의 지리적 위치나 사회문화적 환경 등의 요인에 의해 지역마다 매우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지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중심부이자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대전·충청지역에 있어 지역간 인구이동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며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 보자.

인구의 지역간 이동은 전입과 전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대전의 경우 1989-95년간 전입률은 연평균 8.9%인데 비해 전출률은 연평균 6.3%로 나타나 이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⁷⁾. 이러한 인구 유입 경향은 광역시 중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는 인천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숫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충남북의 경우에는 아직도 지역내에 광범위한 농촌부문이 존재하고 있고 이에따라 이들 부문으로 부터의 이농 현상으로 인해 인구의 유출 경향 또한 병행되어 나타나고 있다. 충남의 경우 1989-95년간 전입률은 연평균 5.7%, 전출률은 연평균 7.4%로 나타나고 있으며, 충북의 경우 이 기간동안 전입률은 연평균 5.8%, 전출률은 연평균 6.4%로 나타나고 있다. 이 두 지역 모두 전출률이 전입률을 초과하여 인구의 순유입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는 있으나, 충북의 경우는 그 정도가 비교적 적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수도권에 해당되는 경기와 공업시설이 발전해 있는 경남을 제외한다면 그 다음으로 충남북 그 중에서도 충북 지역의 경우 인구의 유입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전·충청지역으로 유입된 인구는 주로 어느 지역에서 이동한 것이며, 또 이 지역에서 유출되는 인구는 어느 지역으로 흡수되는 것일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 <표5>에서는 대전·충청지역과 수도권 및 기타 다른 지역 사이의 인구 이동 상황을 정리하였다. 표를 보면 우선 대전 지역의 경우 전입자의 출신 지역을 보면 충남북 지역 출신자가 37.0%, 서울·경기 지역 출신자가 34.4%, 기타 지역 출신자가 28.6%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충남 지역으로의 전입자의 경우에는 대전 및 충북 지역 출신자가 25.4%, 서울·경기 지역 출신자가 47.4%, 기타 지역 출신자가 27.2%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충북 지역으로의 전입자의 경우에는 대전 및 충남 지역 출신자가 18.4%, 서울·경기 지역 출신자가 48.5%, 기타 지

16) 이러한 예측치는 현재의 추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지금의 실제 통계치와도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지고 있다.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1996』, 1996.

17) 여기서는 지역간의 전입과 전출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따라서 같은 지역 내에서의 전입과 전출은 분석에서 제외된다. 이하에서 인용되는 인구이동 관련 통계치는 다음 자료를 이용하였다. 통계청, 『1995년 인구이동통계연보』, 1996.

역 출신자가 32.0%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각 지역으로부터의 진출자가 이동하는 지역 분포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대전 지역의 경우 이 지역을 떠난 인구 중 충청남북 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는 39.9%, 서울·경기 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는 33.9%, 기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는 26.3%이었다. 충남 지역의 경우 이 비율이 각각 28.1%, 48.6%, 23.2%이었고, 충북 지역의 경우 22.4%, 47.7%, 29.8%이었다.

이러한 경향을 대체로 종합해 본다면 대전·충청지역의 인구 이동은 1/3 정도가 이 지역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1/3 - 1/2 정도는 서울·경기라는 수도권과의 인구이동이고, 나머지는 기타 지역과의 인구이동이라 정리될 수 있다. 물론 각 지역별로 약간씩의 차별성은 있다. 예컨대 대전 보다는 충청남북의 경우가 수도권과의 인구이동이 보다 활발하다는 점, 그리고 대전과 충남 사이의 인구 이동은 비교적 활발한 반면 대전·충남과 충북 사이의 인구 이동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편이라는 점 등이 지적될 수 있다.

<표5> 지역간 연간 인구이동 동태 현황

(단위 : 명, %)

전출지 전입지	전 체	대 전	충 남	충 북	서 울	경 기	기타 광역시	기타 도
전 체	2,864,939 (100.0)	80,682 (2.8)	115,723 (4.0)	74,226 (2.6)	883,390 (30.8)	497,138 (17.4)	545,243 (19.0)	668,537 (23.3)
대 전	98,432 (100.0)		25,953 (26.4)	10,399 (10.6)	18,989 (19.3)	14,881 (15.1)	10,479 (10.6)	17,731 (18.0)
충 남	117,638 (100.0)	23,668 (20.1)		6,260 (5.3)	26,501 (22.5)	29,241 (24.9)	14,178 (12.1)	17,790 (15.1)
충 북	77,997 (100.0)	8,558 (11.0)	6,575 (8.4)		18,710 (24.0)	19,147 (24.5)	8,909 (11.4)	16,098 (20.6)
서 울	561,492 (100.0)	14,575 (2.6)	26,635 (4.7)	17,155 (3.1)		262,893 (46.8)	97,021 (17.3)	143,213 (25.5)
경 기	869,652 (100.0)	12,720 (1.5)	29,663 (3.4)	18,286 (2.1)	599,411 (68.9)		98,376 (11.3)	111,196 (12.8)
기타 광역시	501,590 (100.0)	8,191 (1.6)	12,400 (2.5)	8,049 (1.6)	105,229 (21.0)	84,731 (16.9)	33,519 (6.7)	249,471 (49.7)
기타 도	638,138 (100.0)	12,970 (2.0)	14,497 (2.3)	14,077 (2.2)	114,550 (18.0)	86,245 (13.5)	282,761 (44.3)	113,038 (17.7)

자료 : 통계청, 『1995년 인구이동통계연보』, 1996.

그러면 이제 대전·충청지역의 경우 이러한 인구들 중에서 실제 일을 담당하는 노동력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노동력은 15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를 가진 경제활동인구와 그렇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다시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1주일에 1시간 이상 실제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자와 그렇지 못한 실업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전체 인구 중 어느 정도의 비율이 실제 노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1-취업률)이라고 하는 두가지의 매개고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¹⁸⁾.

다음 <표6>은 이러한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이라는 변수가 이 지역에 있어 어떠한 양상을 보여 왔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우선 대전 지역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4개년 동안 56%대에서 안정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숫치는 광역시 평균치인 61%대에 비해 5% 가량 낮은 것이다. 충북 지역의 경우도 경제활동참가율은 59%대로 전국 도 평균 62%대에 비해 3%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충남 지역의 경우에는 이 숫치가 64%대로 도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표6> 지역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비교

(단위 : %)

	대전	충남	충북	전 체	광역시	도 (광역시 제외)
<경제활동참가율>						
1993년	56.8	63.4	60.6	61.1	60.4	61.8
1994년	56.6	65.0	60.0	61.7	61.1	62.2
1995년	56.7	64.5	59.5	62.0	61.7	62.2
1996년	56.5	64.0	59.6	62.0	61.6	62.4
<실업률>						
1993년	4.1	1.3	2.1	2.8	3.7	1.9
1994년	4.0	1.1	2.0	2.4	3.2	1.7
1995년	3.4	1.0	1.5	2.0	2.8	1.3
1996년	2.7	1.0	1.3	2.0	2.7	1.3

자료 : 통계청, 『1996 경제활동인구연보』, 1997.

이러한 경향성은 실업률의 추이에서도 다시 확인된다. 물론 1996년 들어 그 경향이 완화되고는 있으나 1995년까지만 하더라도 대전과 충북 지역의 경우 실업률은 각각 광역시 평균과 도 평균치를 0.6 - 0.2% 가량씩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충남 지역은

18) 경제활동참가율이란 15세 이상의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며,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실업률이 도 평균치를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전과 충북 지역의 경우 전국적인 평균치와 비교할 때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이 지역에 잠재적인 노동력층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해 그만큼 이 지역에 있어 노동력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있어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 <표7>에서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성 요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그 이유가 가사로 인한 경우는 대전은 그 비율이 광역시 평균치와 거의 비슷하고 충북은 그 비율은 도 평균치를 오히려 약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그 이유가 학업으로 인한 경우는 매우 뚜렷한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전에 있어 이 비율은 38.8%로 광역시 평균치인 33.3%에 비해 5% 이상 더 높으며, 충북에 있어서도 이 비율이 35.9%로 도 평균치 30.9%를 역시 5% 가량 상회하고 있다. 반면 충남의 경우 이 비율은 31.6%로 도 평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대전 충북 지역의 낮은 노동력 활용도는 이 지역의 높은 교육 정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순히 전체 인구 중 대학교 재학생의 비율만을 보더라도 대전의 경우 5.0%, 충북의 경우 4.0%로 전국 평균치인 2.8%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⁹⁾. 이러한 고학력화 현상은 <표7>에서 취업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더라도 다시 확인되어 진다. 대전이나 충북 지역의 경우 취업자 중 20대의 비중이 광역시 평균치나 도 평균치를 다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남 지역의 경우에도 취업자 중 20대의 비중이 도 평균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 지역의 경우 취업자 중 55세 이상의 고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30.0%로 도 평균 19.8%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충남 지역의 경우 이처럼 고연령층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여타 연령층의 비율이 체계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대전과 충북 지역의 경우 고학력화로 인해 노동력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가 중요하다면, 충남 지역의 경우에는 고연령층의 취업자 문제가 보다 중요하게 부각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력의 양적 공급 구조에 관한 이상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구 변동과 관련해서 대전·충청지역은 타 지역 특히 수도권과의 인구가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대전 지역의 경우 전입률이 전출률을 초과하여 타 지역으로 부터의 인구 유입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대전과 충북 지역의 경우 여타 지역에 비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실업률이 높아 노동력의 활용도가 낮은 상황인데 이는 이 지역의 고학력화 현상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충남 지역은 이러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으나 취업자 중 55세 이상의 고연령층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19) 이는 1995년을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다.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1996』, 1996

<표7> 지역별 경제활동인구 구성의 비교

(단위 : 1,000명, %)

	대전	충남	충북	전 체	광역시	도 (광역시 제외)
15세 이상 인구	910	1,418	1,042	34,182	16,345	17,837
경제활동인구	514	907	621	21,188	10,065	11,123
취업자	500 (100.0)	898 (100.0)	613 (100.0)	20,764 (100.0)	9,791 (100.0)	10,974 (100.0)
<성별> 남 자	61.5	57.8	56.9	59.4	59.7	59.1
여 자	38.5	42.2	43.1	40.6	40.3	40.9
<연령별> 15-19세	2.0	1.1	2.3	1.9	2.3	1.6
20-24세	11.0	6.2	9.3	9.7	11.1	8.5
25-29세	13.6	8.7	9.8	13.4	15.1	11.9
30-34세	13.4	9.7	11.3	14.1	14.3	13.8
35-44세	29.2	23.6	26.6	27.7	28.4	27.1
45-54세	18.6	20.7	18.9	17.7	18.2	17.3
55-59세	6.4	10.7	8.0	6.6	5.6	7.6
60세 이상	5.8	19.3	13.9	8.8	5.0	12.2
비경제활동인구	397 (100.0)	510 (100.0)	421 (100.0)	12,994 (100.0)	6,279 (100.0)	6,713 (100.0)
(가사)	49.6	47.1	50.1	51.3	49.6	52.9
(통학)	38.8	31.6	35.9	33.3	33.3	30.9

자료 : 통계청, 『1996 경제활동인구연보』, 1997.

그러면 이제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노동력의 공급 구조에 대하여 살펴보자. 원래 근로자의 숙련이나 기능 정도는 이를 계량화하여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이에 따라 이와 관련된 체계적인 조사 자료 특히 지역별 비교 자료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몇몇의 단편적인 자료나 간접적인 정보만이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대전·충청지역에 있어서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노동력의 공급 구조 양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타 지역과 비교해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여기서는 단지 이와 관련된 단편적인 자료를 정리하여 약간의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선 우리의 관심을 끄는 사항은 과연 이 지역에 근로자의 기능이나 숙련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된 몇몇 단편적인 연구 결과들을 모아 보면 이 지역에도 기능인력의 부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성호(1996)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의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있어서 기술인력 및 기능인력의 확보율이 대전의 경우 각각 88.9%, 87.9%이고 충남의 경우 각각 79.6%, 80.1%로 나타나 전국적인 평균치인 86.2%, 89.2%와 비슷하거나 이를 밑도는 수준에 놓여 있음을 보이고 있다²⁰⁾. 대전상공회의소 관할 207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류덕위(1993)에 따르면 대전 지역 제조업체들에 있어서 경영상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부족이 23.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기술인력의 부족이 23.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섬유·의복 및 가죽 산업, 조립·금속·기계 제조업, 기타 제조업에 있어서 기술인력 부족을 경영상의 중요한 애로사항으로 지적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처럼 근로자의 기능 상에 애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통상 노동자의 기능은 학교나 훈련기관과 같은 공식적인 경로와 기업내에서의 현장훈련이라는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형성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기업 스스로 기능 인력의 부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그만큼 이 지역에 있어서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공식적인 경로 상에 무엇인가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학교 교육에 대하여 살펴보자.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대전이나 충청 지역의 경우 전체 인구 대비 대학생의 비율이 여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측면에서의 고학력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시스템은 제대로 갖추어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명기(1994)에 따르면 대전 지역내 대학생의 증가 경향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 공급가능한 기술인력은 1993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할 때 공학사 4,662명, 공학석사 2,238명, 공학박사 1,078명이고 전문대학의 기술인력 공급 규모는 3,840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들 전문인력은 대부분 대전지역에 취업하기 보다는 타지역으로 진출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노동시장의 공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능인력을 양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업고등학교 역시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대전 지역의 경우 실업계 고등학생의 비중이 전체 고등학생의 36.0%로 전국 평균치인 41.9%에 비해 크게 낮아 전체적으로 보아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인문화 경향을 뚜렷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일반적으로 이직률이 매우 높아 대전지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노동시장을 구조화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²¹⁾.

직업훈련기관 역시 기능인력을 양성·배출하는데 있어 뚜렷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정명기(1994)에 따르면 1993년말 현재 훈련계획은 9,213명의 숙련 노동력을 양성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훈련실적은 겨우 3,33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훈련실적 중 사업장내 훈련이 전체의 80.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직업훈련은 훈련계획이 1,780명인데 실적은 197명에 불과하여 기능인력의 양성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비록 단편적인 자료를 통한 추론이기는 하지만 이상의 분석 결과 대전·충청지역에 있어

20) 이에 관한 원 자료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의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서(1994)』이다.

21) 정명기(1994)는 1994년 6월 대전동아공고 3학년 재학생 142명과 대전직업훈련원 45명 등 총 187명의 예비 기능인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결과 이들이 졸업후 대전·충청지역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46.0%인 86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01명의 학생은 수도권이나 기타 다른 지역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노동력 공급 구조, 즉 기능 인력의 양성 체계 상에 일정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 지역에 있어서 기능 인력의 공급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4. 노동조건 상황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근로자의 노동조건은 여러 가지 차원과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 통상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대표하는 지표로는 임금수준과 고용안정성 정도가 분석된다. 그리고 이 외에도 근로자의 직장만족도 역시 중요한 분석대상이 되곤 한다. 노동조건 상황과 관련하여 여기서의 일차적인 관심사는 대전·충청지역 근로자의 노동조건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어떠한 수준 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사항은 이 지역에 있어서 노동시장의 분단화 경향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한국 노동시장 구조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노동조건 상의 격차가 크게 확대됨으로써 노동시장의 분단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²²⁾. 이러한 노동시장의 분단화 측면에 있어서 이 지역의 노동시장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하는 점 역시 여기서의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이하에서는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임금, 이직률, 직장만족도라는 세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그 각각에 대해 위의 사항을 확인해 보기로 한다.

먼저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대하여 살펴보자. <표8>은 노동부의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을 지역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를 보면 우선 대전 지역과 충북 지역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광역시 평균 및 도 평균치 보다 대략 10만원 남짓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충남의 경우 임금수준은 거의 도 평균치와 비슷하다. 대전과 충북에 있어서 각 근로자 그룹별로 임금수준을 광역시 평균 및 도 평균과 비교해 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가 여자에 비해 임금수준이 보다 더 낮으며,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 비해, 그리고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에 비해 임금수준이 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³⁾.

여기서 각 지역의 규모별 임금격차는 앞에서 설명한 노동시장의 분단화 경향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10-29인 사업체의 임금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5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수준은 대전의 경우 163.2로 광역시 평균치인 153.0 보다도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충남과 충북의 경우는 이 비율이 각각 114.9, 134.5로 나타나 도 평균치 152.5를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 지역의 노동시장 구조에 관해 추론을 해 본다면, 대전 지역의 경우 규모별로 노동시장이 분단되어 있는 경향이 강한 반면 충남·북의 경우는 규모별 노동시장의 분단 경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가설을

22) 자세한 것은 졸고(1994) 참조.

23) 규모별로 볼 때 충북의 경우에는 대전과 달리 500인 이상의 대기업에 있어서도 도평균치를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시할 수 있겠다²⁴⁾.

사실 임금수준의 단순비교로는 지역간 임금격차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성이나 학력 등의 인적속성은 물론 규모나 산업 등의 사업체 특성이 서로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인적속성 및 사업체 특성을 통제하고서도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임금수준이 유의하게 높은지 혹은 낮은지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8> 지역별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비교

(단위 : 원)

	대전	충남	충북	전 체	광역시	도 (광역시 제외)
<전체 평균>	1,298,865	1,273,106	1,190,803	1,318,664	1,376,195	1,289,361
<성별>						
남 자	1,444,365	1,455,976	1,374,511	1,483,489	1,564,302	1,456,597
여 자	888,020	846,755	824,192	894,015	929,821	872,628
<규모별>						
10 - 29인	1,073,659	1,254,938	1,083,197	1,096,240	1,145,037	1,095,890
30 - 99인	1,074,114	1,126,832	1,021,195	1,129,612	1,249,146	1,127,286
100 - 299인	1,232,254	1,336,962	1,202,438	1,306,398	1,361,429	1,293,233
300 - 499인	1,792,671	1,453,070	1,446,906	1,507,644	1,550,491	1,426,753
500인 이상	1,752,586	1,442,413	1,456,410	1,708,333	1,752,067	1,670,893
<산업별>						
광업	881,290	1,563,288	1,042,981	1,238,401	1,374,426	1,252,270
제조업	1,115,130	1,147,694	1,156,901	1,256,665	1,238,159	1,255,457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1,380,586	1,464,903	1,254,504	1,380,366	1,463,429	1,346,818

주 : 여기서 임금은 정액급여와 초과급여를 합한 월급여총액에 1996년 10월중 특별급여액을 합한 액수임.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특별조사보고서 1996』, 1997.

여기서는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대우경제연구소에서 조사한 “한국가구패널조사(Korean Household Panel Study)”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임금함수를 추정하기로 한다. 이 자료는 현재 1993년부터 1995년까지 3차에 걸쳐 실시된 조사 결과가 공개되어 있다²⁵⁾. 1993년에

24) 물론 노동시장의 분단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임금격차 이외에도 노동이동의 동향이나 제반 노동조건 상황등이 충분히 분석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의 설명은 가설 차원에서 제시된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실시된 1차 조사에서의 표본수는 4,547가구 10,460명이었다. 1995년 3차 조사에서는 그동안의 표본의 탈락과 신규진입으로 인해 표본수가 3,108가구 7,493명으로 감소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조사 자료의 개인에 대한 설문에서 자신의 주된 활동이 무엇인지를 (01) 봉급생활(상근직, 정규 피고용), (02) 자영업/자유업, (03)농림수산업, (04) 비정규직종사(계약, 임시, 일용직), (05) 미취업(취업준비), (06) 무급 가족종사, (07) 가사/전업주부, (08) 학업(학생, 재수생 포함), (09) 청소년/아동, (10) 연로, (11) 군복무(의무), (12) 기타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항목에 대해 ‘(01) 봉급생활(상근직, 정규 피고용)’이라고 응답한 사람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설문 자체가 주된 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상이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비정규직이나 무급가족종사자와 같은 불안전고용층에 대해서는 임금수준을 분석할 수 있는 항목이 조사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1993년 1차 조사시 자신의 주된 활동이 ‘봉급생활(상근직, 정규 피고용)’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총 2,839명이고, 1995년 3차 조사시는 총 1,892명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여기서는 노동경제학에서 주로 분석하는 임금함수를 추정하였다. 종속변수는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의 로그값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근로자의 인적속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성 더미변수, 학력 더미변수, 결혼여부 더미변수, 근속년수 및 근속년수의 제곱, 경력년수 및 경력년수의 제곱, 직종 더미변수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사업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규모 더미변수를 사용하였고, 이 외에 지역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임금수준에 있어서 지역간 유의미한 격차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역 더미변수의 경우 임금함수에서는 대전 지역일 경우 1의 값을 갖는 변수를 제외하였기 때문에, 각 지역의 더미변수의 계수값은 대전 지역과의 임금의 격차를 의미하게 된다. 임금함수에 사용된 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각 변수의 1993년 및 1995년 평균치는 다음 <표9>에 정리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임금함수를 추정하여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 다음 페이지 <표10>이다. 표를 보면 우선 1993년 및 1995년에 있어 $Adj R^2$ 가 각각 0.417, 0.404로 나타나 모델이 일정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 변수들의 계수값 역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부호 및 유의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전의 주로 노동부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되었던 기존 연구들의 임금함수에서의 추정치와 비슷한 결과를 제시해 주고 있다. 남자는 여자에 비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근속년수 및 경력년수가 길수록, 규모가 큰 기업에 종사할수록, 사무직은 생산직에 비해 임금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더미변수는 1993년 자료의 결과와 1995년 자료의 결과가 약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두 개 연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대전 지역과 여타 지역은 유의한 수준의 임금격차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단 1993년의 경우에 광주 지역과 전북 지역이 대전지역보다 각각 5% 및 10%의 유의수준 하에서 임금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하튼 몇 개의 지역이 대전 지역과 유의한 임금격차를 보이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인적속성이나 사업체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지역만의 순수한 임금격차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5) 최근 1996년도 제4차 조사 자료가 공개되었으나 본 연구 시점에서 이 자료를 이용하지는 못하였다.

<표9> 변수에 대한 설명

변수명	설명	1993년 평균값	1995년 평균값
SEXD	<성더미> 남자=1	0.75	0.72
SCHOOL2	<학력더미> 중졸=1	0.10	0.09
SCHOOL3	고졸=1	0.47	0.48
SCHOOL4	전문대졸=1	0.09	0.11
SCHOOL5	대졸=1	0.26	0.23
MARRD	<결혼여부더미> 기혼=1	0.75	0.73
TEN	근속년수	6.08	6.53
TENSQ	근속년수의 제곱	85.88	96.26
EXP	경력년수	10.88	11.75
EXPSQ	경력년수의 제곱	226.39	237.29
SIZE2	<규모더미> 30-99인=1	0.21	0.24
SIZE3	100-299인=1	0.13	0.13
SIZE4	300-499인=1	0.06	0.04
SIZE5	500인 이상=1	0.21	0.17
OCC1	<직종더미>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1	0.01	0.04
OCC2	전문가=1	0.08	0.07
OCC3	기술공 및 준전문가=1	0.19	0.16
OCC4	사무직원=1	0.26	0.23
OCC5	서비스직 및 판매직=1	0.03	0.07
REG11	<지역더미> 서울=1	0.30	0.30
REG21	부산=1	0.12	0.10
REG22	대구=1	0.05	0.05
REG23	인천=1	0.05	0.04
REG24	광주=1	0.02	0.02
REG31	경기=1	0.16	0.15
REG32	강원=1	0.01	0.01
REG33	충북=1	0.03	0.04
REG34	충남=1	0.02	0.03
REG35	전북=1	0.03	0.03
REG36	전남=1	0.01	0.02
REG37	경북=1	0.04	0.05
REG38	경남=1	0.06	0.06

<표10> 임금함수 추정 결과

변수명	1993년 자료	1995년 자료
INTERCEPT	7.257 (0.072)***	7.525 (0.112)***
SEXD	0.278 (0.025)***	0.223 (0.035)***
SCHOOL2	0.023 (0.047)	0.155 (0.067)***
SCHOOL3	0.248 (0.048)***	0.311 (0.067)***
SCHOOL4	0.321 (0.058)***	0.476 (0.078)***
SCHOOL5	0.476 (0.056)***	0.624 (0.077)***
MARRD	0.113 (0.027)***	0.156 (0.037)***
TEN	0.025 (0.003)***	0.029 (0.005)***
TENSQ	-0.0003 (0.0001)**	-0.0004 (0.0001)**
EXP	0.018 (0.003)***	0.017 (0.004)***
EXPSQ	-0.0004 (0.00006)***	-0.0005 (0.0001)***
SIZE2	0.111 (0.025)***	0.051 (0.031)
SIZE3	0.128 (0.028)***	-0.037 (0.038)
SIZE4	0.135 (0.039)***	0.134 (0.057)**
SIZE5	0.181 (0.027)***	0.146 (0.037)***
OCC1	0.070 (0.083)	0.201 (0.064)***
OCC2	0.324 (0.040)***	0.210 (0.057)***
OCC3	0.159 (0.027)***	0.158 (0.037)***
OCC4	0.138 (0.025)***	0.083 (0.034)**
OCC5	0.015 (0.049)	-0.046 (0.049)
REG11	0.024 (0.050)	-0.010 (0.083)
REG21	-0.057 (0.053)	-0.017 (0.088)
REG22	0.023 (0.061)	0.002 (0.094)
REG23	0.055 (0.061)	-0.072 (0.096)
REG24	-0.163 (0.074)**	-0.020 (0.116)
REG31	0.0002 (0.053)	-0.013 (0.086)
REG32	0.033 (0.089)	0.185 (0.115)
REG33	-0.042 (0.071)	-0.052 (0.099)
REG34	-0.096 (0.075)	-0.081 (0.107)
REG35	-0.150 (0.076)*	-0.024 (0.113)
REG36	-0.080 (0.082)	-0.041 (0.118)
REG37	-0.018 (0.064)	-0.017 (0.095)
REG38	-0.021 (0.058)	0.116 (0.094)
N	2,125	1,426
Adj R ²	0.417	0.404

주 : 괄호 안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임

***는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는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는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물론 자료가 다르긴 하지만 앞에서 노동부 자료를 통해 확인했던 사실, 즉 대전과 충북 지역의 임금수준이 광역시 평균 및 도 평균과 비교해 볼 때 10만원 가량 낮다는 것은 사실상 이 지역 근로자들의 인적구성 상의 차이 혹은 사업체 특성 상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앞 장에서 분석했던 바와 같이 대전·충청지역의 경우 여타 지역 특히 수도권 지역과의 인구 이동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활발한 노동이동으로 인하여 지역간 노동조건은 평준화되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다음으로 지역별 고용안정성의 차이에 관하여 살펴 보자. 통상 고용안정성과 관련된 지표로는 이직률이 분석되어 진다. 다음의 <표11>은 지역별로 이러한 이직률의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를 보면 가장 특징적인 사실은 대전 지역의 경우 근로자의 월 이직률이 1.99로 광역시 평균치인 2.75보다 크게 낮다는 점이다. 반면 충남과 충북은 월 이직률이 각각 2.85 및 2.91로 도 평균 2.94와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성별로 나누어 살펴볼 때 남자와 여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산업별로도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있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11> 지역별 노동자의 월 이직률 비교

(단위 : %)

	대전	충남	충북	전 체	광역시	도 (광역시 제외)
<전체 평균>	1.99	2.85	2.91	2.83	2.75	2.94
<성별>						
남 자	1.83	2.26	2.55	2.54	2.38	2.62
여 자	2.43	4.23	3.63	3.59	3.63	3.73
<규모별>						
10 - 29인	2.87	2.80	3.60	3.95	3.53	4.04
30 - 99인	2.15	2.76	2.91	3.10	3.06	3.21
100 - 299인	2.15	3.96	3.94	2.80	2.72	2.87
300 - 499인	1.09	2.45	2.51	2.11	2.16	2.53
500인 이상	1.04	1.59	1.32	1.68	1.72	1.62
<산업별>						
광업	2.08	13.11	3.89	2.65	4.75	3.61
제조업	2.08	3.33	2.99	3.15	3.22	3.2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1.95	1.89	2.76	2.52	2.45	2.45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특별조사보고서 1996』, 1997.

규모별로 나누어 볼 경우에도 이러한 현상은 전규모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사항은 대전 지역의 경우 300-499인 및 500인 이상의 대기업체에 있어서 근로자의 월 이직률이 각각 1.09%, 1.04%로 다른 규모층의 이직률에 비해서는 물론 동일 규모의 광역시 평균치에 비해서도 크게 낮다는 사실이다. 반면 충남북의 경우에는 500인 이상의 대기업체에 있어서 월 이직률이 낮아지고는 있으나 도 평균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 지역별로 규모별 임금격차의 양상을 분석하였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대전의 경우에는 규모별로 노동시장이 분단되어 있는 경향이 강한 반면 충남북에서는 아직 노동시장의 분단 경향이 약하다는 앞에서 제시한 가설을 지지해주는 지표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로 근로자들의 직장만족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토해 보자. 대우경제연구소의 패널 자료에는 설문자에게 직장만족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 그 만족도를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 ② ... ③ 보통이다 ... ④ ... ⑤ 매우 만족스럽다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 <표12>는 각 항목별로 이러한 만족도 점수의 평균을 구하여 이를 지역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를 보면 대부분의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다는 3.0의 값을 가지고 있다. 항목별로는 수입, 근무시간, 장래성 등에 대해서는 불만족의 경향이 다소 강하고, 안정성, 업무내용, 근무환경은 만족의 경향이 다소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차이는 매우 미세하다고 보여진다.

<표12> 지역별 직장만족도 비교

	대전	충남	충북	전 체	광역시	도 (광역시 제외)
전반적 만족도	3.09(0.94)	3.18(0.80)	3.15(0.94)	3.10(0.89)	3.11(0.90)	3.09(0.88)
수입	2.70(1.11)	2.84(0.95)	2.87(0.90)	2.66(0.98)	2.65(1.02)	2.67(0.93)
안정성	3.18(1.17)	3.12(0.99)	3.44(1.00)	3.16(1.06)	3.18(1.07)	3.13(1.04)
근무시간	2.89(1.28)	3.10(1.00)	3.17(1.09)	2.93(1.07)	2.89(1.08)	2.97(1.05)
업무내용	3.10(1.04)	3.18(0.86)	3.28(0.92)	3.10(0.95)	3.11(0.95)	3.09(0.95)
근무환경	3.00(1.17)	3.20(0.95)	3.25(0.97)	3.02(1.00)	3.02(1.00)	3.03(1.01)
장래성	2.67(1.08)	2.89(0.87)	3.08(1.13)	2.97(1.10)	2.99(1.11)	2.94(1.09)
이직성향(%)	25.4	12.0	11.5	17.2	17.5	16.7
표 본 수	55	58	78	1,888	1,084	804

자료 : 대우경제연구소, 1995년 한국가구패널조사자료.

지역별로 볼 때 우리의 관심사인 대전·충청지역 근로자의 직장만족도는 광역시 평균 및 도 평균과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인 만족도의 경우 대전은 3.09로 광역시 평균 3.11과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지고 있으며, 충남 및 충북은 각각 3.18, 3.15로 도평균 3.09에 비해 미세하게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 분석하였던 임금수준에 대한 결과와 조응되는 결과이다. 대전·충청지역은 전반적으로 노동조건이 여타 지역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대전 지역의 경우 이직률이 낮아 고용이 보다 안정화되어 있고, 특히 이 지역에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임금수준 및 고용안정성의 측면에 있어 차이가 두드러진다는 사실 정도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대전·충청지역을 대상으로 노동력 수요 구조 및 공급 구조 그리고 이에 의해 결정되는 제반 노동조건의 상황을 여타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이 지역 노동시장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었다. 핵심적인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동력 수요 구조와 관련하여 대전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정부부문과 서비스부문(그중에서도 특히 연구개발사업과 교육서비스업)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반면 충북의 경우 그동안의 급속한 공업화를 통해 제조업의 비중이 전국 평균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 노동력의 공급 구조 중 양적인 측면과 관련해서는 대전과 충북 지역의 경우 여타 지역에 비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실업률이 높아 노동력의 활용도가 낮은 상황인데 이는 이 지역의 고학력화 현상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충남 지역의 경우 취업자 중 55세 이상의 고연령층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질적인 측면을 살펴 보면 이 지역에 있어 학교 교육이나 직업훈련과 같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함으로써, 기능 인력의 공급 상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건의 상황을 분석한 결과 대전·충청지역은 전반적으로 노동조건이 여타 지역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대전 지역의 경우 이직률이 낮아 고용이 보다 안정화되어 있고, 규모별로 볼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노동조건 상의 차이가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한 노동 정책의 수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첫째, 대전 지역 그리고 그 인접지역인 충남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제조업 부문의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이 지역에 있어 계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해 나가는 과정에 일정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 그동안 연구개발사업의 급속한 성장 및 내년부터 시작될 정부중합청사의 일부 이전 등은 이 지역 경제 발전

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부문은 이 지역 자체 내에서 인력이 조달되어 온 것이 아니라 외부 지역으로부터의 전입에 의해 대부분의 인력이 충원되어 왔기 때문에 이 지역의 고용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못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의 안정적인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통한 제조업 부문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이 지역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정부부문 및 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인력 충원이 이 지역내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대전과 충북 지역에 주로 나타나고 있는 노동력 활용도의 저하라는 현상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앞서의 분석 결과 확인되어졌듯이 이는 기본적으로 이들 지역의 고학력화 현상에 기인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예비 근로자의 인적자본투자량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일정정도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고학력화 추세 속에는 실망노동자효과에 의한 잠재적 실업자군이 다수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특히 현재 이 지역의 교육 추세가 인문화 경향이 보다 강하고 기능인력의 양성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회적 효율성의 저하라는 부정적 판단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여하튼 이러한 고학력화 현상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고학력 예비 근로자들이 졸업후 직업 현장에 참여하게 될 때 실질적으로 높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을 충실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고학력 근로자들이 취업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문의 직무를 창출하는 것 역시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셋째, 특히 충남 지역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취업자의 고령화 현상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충남지역의 경우 아직 농촌부분이 상당 정도 잔존해 있고 여기에 이러한 고연령층이 다수 존재하고 있겠지만, 이 외에 근대적 부문 내에도 고연령 취업자는 다른 지역 보다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장년층 취업자와는 달리 이러한 고연령층 취업자의 경우에는 조만간 닳치게 될 이들의 장래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이들 고연령 취업자는 조만간 현재의 직업으로부터 정년 퇴직을 하게 될텐데, 그 후 이들이 자신의 능력에 맞고 또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일정한 역할을 계속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고용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이들의 능력을 활용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적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이 지역에 있어 학교나 직업훈련기관을 통한 기능인력 양성 과정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교육체계가 인문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실업계의 경우도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직업훈련의 경우도 대부분 형식적인 보고용으로 진행되고 있어 기업의 숙련 근로자에 대한 인력난을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최근 정부 차원에서 교육개혁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아직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의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는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있어서도 지역 차원에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노동력의 질적 구조는 어떠한 것이며, 이러한 기업의 인력 수

요를 어떠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통해 충원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다섯째, 이 지역 근로자의 노동조건은 여타 지역 근로자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전 지역의 경우 근로자의 월 평균 이직률은 전국 평균치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 지역 노동자들의 고용이 타지역보다도 오히려 안정되어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대전 지역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임금 및 이직률 상에 큰 격차를 보여 노동시장의 분단화 정도가 보다 큰 것으로 판단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노동조건이 근로자의 능력 상의 격차 이상으로 발생할 때 노동자들 내부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대전·충청지역 노동시장구조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정리하여 이 지역 노동시장구조의 특수성을 해명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대전과 충남북을 분리하여 이들 지역의 노동시장 관련 제반 지표가 전국 광역시 평균치 및 도 평균치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수준에 놓여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분석내용이 대전과 충남북 각 지역의 특수성이 병렬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 이들 지역의 공통성이 분석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대부분의 분석이 거시적 지표에 근거하여 설명되고 미시적 차원에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논의 자체가 추상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본 논문의 중요한 한계이자 앞으로의 연구 과제이다.

< 참 고 문 헌 >

1. 논문 및 단행본

- 권학주(1995),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금융의 역할 -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한남대 지역개발학과 석사학위논문.
- 남기곤(1994), 「독점·비독점부문간 노동시장구조의 차이에 관한 세 논문」, 서울대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 류덕위(1996), 『대전지역 기업의 기술개발지원 강화방안』, 대전상공회의소.
- 박 경(1996), 『21세기를 향한 대전경제발전 방향』, 대전상공회의소.
- 원동규(1992), 「지역간 노동이동을 통한 지역노동시장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염명배(1996), 「대전·충남지역의 산업육성방향에 관한 경영전략적 접근」, 대전·충남지역의 경쟁력 강화방안 및 금융의 역할에 관한 심포지움 발표문.
- 이성호(1996), 「충청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바람직한 지원시책」, 충청지역경제와 중소기업 발전전략에 관한 심포지움 발표문.
- 이승주(1992), 「대전지역경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 지역개발학과 석사학위논문.
- 임상일(1993), 「대전지역 특화산업의 육성방안」, 지역 기술개발지원 및 특화산업 육성 심포지움 발표문.
- 정명기(1994), 『대전지역 노동시장 구조와 제조업 인력확보 방안』, 대전상공회의소.
- 진영환(1996), 「충청지역 산업경제의 바람직한 발전체제 구축」, 충청지역경제와 중소기업 발전 전략에 관한 심포지움 발표문.
- 최정수(1990), 「대전지역 노동시장구조에 관한 연구」, 한남대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2. 통계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6』, 1996.
- 국립교육평가원, 『1996 교육통계편람』, 1996.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특별조사보고서 1996』, 1997.
- _____,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1996』, 1997.
- 대우경제연구소, 1993년 및 1995년 한국가구패널조사자료.
- 대전광역시, 『대전통계연보 1996』, 1996.
- _____, 『지역경제동향』, 1997.

- 대전상공회의소, 『1997년도 2/4분기 대전지역 기업경기전망 조사보고서』, 1997.
- 서울특별시, 『도시비교통계 1996』, 1997.
-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1996』, 1996.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1996』, 1996.
- 통계청, 『고용구조조사보고서 1992』, 1993.
- _____, 『1993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95.
- _____, 『1996 경제활동인구연보』, 1997.
- _____, 『1995년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1997.
- _____, 『1995년 인구동태통계연보』, 1996.
- _____, 『1995년 인구이동통계연보』, 1996.
- _____, 『지역통계연보 1996』, 1996.
- 한국노동연구원, 『지방화와 노동 - 자료집』, 1995.
- _____, KLIdb 노동통계 데이터베이스, 1997.
- 한국은행 대전지점, 『대전·충남지역 경제동향』, 1997.

< 경력 사항 >

1. 경력

1982. 3. - 1986. 2.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학사
1986. 3. - 1988. 2.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 석사
1988. 3. - 1994. 8.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 박사
1995. 2. - 현재 대전산업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2. 주요 연구실적

「독점-비독점부문간 노동시장구조의 차이에 관한 세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4.

「독점부문과 비독점부문간 숙련수준의 차이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제17권 제1호, 한국노동경제학회, 1994, pp. 233-254.

「독점부문과 비독점부문간 노동이동의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학회 1994년도 정기 학술대회 발표논문, 1995.

「1980년대 후반 이후 노동자가구의 소비지출의 변화양상」,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자 생활』,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연구총서 II, 1996.

「규모별 임금격차의 원인에 관한 연구」, 『동향과 전망』, 제35호, 한울, 1997.